AI digest 2026-11-16

11월 16일 AI 아침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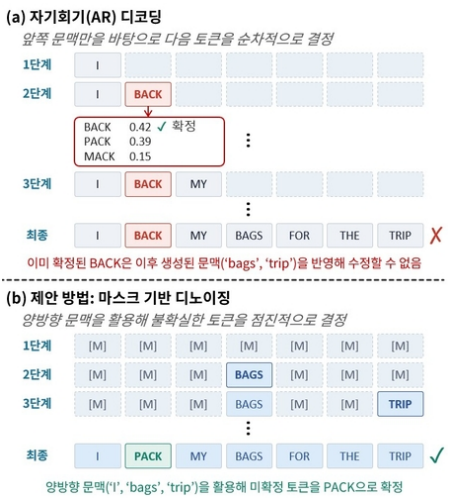
국내 소식을 먼저, 국내 연구 성과와 산업 적용, 정책 동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KAIST, 입모양만 읽는 AI 정확도 끌어올려…EMNLP 우수논문상

구분: 국내 AI 연구 / 2026-11-15, 전자신문·파이낸셜뉴스 보도

- KAIST 노용만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팀이 입모양만으로 말 내용을 알아듣는 '시각적 음성 인식'(VSR)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난청인의 대화를 돕는 소통 기술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 핵심은 순서대로 읽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소리도 입술 움직임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기존 AI는 첫 단어부터 차례로 만들다 보니 앞의 오류가 뒤로 퍼졌습니다. 연구팀은 문장의 빈칸을 채우는 '확산 대형 언어 모델'(DLLM)을 활용해 입술 움직임이 분명한 단어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단서로 모호한 부분을 앞뒤 문맥으로 해독하게 했습니다.
- 433시간 분량의 입모양 영상 데이터셋 'LRS3'를 정답 데이터로 써서 단어 오류율 19.4%를 기록했고, LRS3만 학습에 쓴 기존 방법들 가운데 가장 낮은 오류율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는 자연어처리 학회 EMNLP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 주의: 성능 수치는 연구팀이 보고한 실험 결과이며, 실제 대화 환경에서의 독립 검증은 아직 없습니다.

제안 (BIM 연계): '확실한 부분부터 확정하고 모호한 부분은 문맥으로 보정'하는 방식은 도면 자동 인식의 후처리 설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기호가 명확한 요소부터 고정하고 나머지를 주변 정보로 추론하는 순서 설계와 닮았습니다.



이미지: 기사에 실린 연구 개념도(기존 순차 디코딩과 제안 방식 비교). 기사 첫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라 제외했습니다. 출처: https://www.etnews.com/20261113000113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31419437881

2. 쇼호스트도 카메라도 없다…현대홈쇼핑, 업계 첫 100% AI 방송

구분: 국내 산업 AI / 2026-11-15, 연합뉴스 보도

- 현대홈쇼핑이 데이터홈쇼핑 채널 '현대홈쇼핑 플러스샵'에 방송 전체를 AI로 제작하는 'AI-REAL'을 도입합니다. 쇼호스트와 카메라 촬영 없이 AI가 목소리부터 화면까지 생성하며, 방송 전체를 AI로 만드는 것은 홈쇼핑 업계 최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 첫 정규 방송은 오늘(16일) 오후 3시 20분 '제주 하트 골드키위' 판매 방송입니다. AI로 산지 토양 상태나 유통 과정처럼 기존 촬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정보를 시각화해 전달한다는 구상입니다.
- 회사에 따르면 최근 시험 방송에서 상품 샘플 준비와 인서트 영상 제작 등 협력사 비용이 기존 대비 80% 이상 줄었고, 매출은 목표 대비 120%를 달성했습니다. 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편성하고 가공식품·생활용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의: 비용 절감과 매출 수치는 현대홈쇼핑이 밝힌 시험 방송 결과로, 독립적인 검증이나 시청자 반응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안 (BIM 연계): '촬영 없이 정보만으로 화면 생성'은 건설 분야의 BIM 모델 기반 자동 시각화(시공 시뮬레이션 영상, 발주자 보고 자료)와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생성 품질이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볼 사례입니다.



이미지: 현대홈쇼핑이 제공한 AI-REAL 제작 화면 예시(AI가 생성한 방송 화면).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5022000030

3.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조3364억 증액…AI 에이전트·AI 보안 추가

구분: 국내 AI 정책 / 2026-11-14, 이노바저널 보도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등 4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소관에서는 세출·지출 부문 총 1조336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부안(29조6000억 원) 가운데 AI 분야는 9조4000억 원 규모입니다.
- AI 관련 증액 항목으로는 'AI 에이전트 선도국가' 사업 300억 원,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 사업 500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AI 보안 서비스 보급과 AI 해킹 포착·자율방어 체계 개발이 정부가 밝힌 추진 방향입니다.
-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출연연구기관 처우개선 인건비(1187억 원)였고, 미래대응기금은 2636억 원 증액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외산 장비 수요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AI DC 소부장 클라우드 기술개발' 관련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 주의: 상임위 의결 단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 두 AI 사업의 정부안 원래 규모와 증액 사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안 (BIM 연계): 'AI 에이전트 선도국가'와 중소기업 AI 지원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 중소기업·설계사무소 대상 AI 보급 사업의 재원이 될 수 있어, 세부 사업 공고를 지켜볼 만합니다.



이미지: 보도 매체(이노바저널)가 제작한 기사 그래픽. 출처: https://www.axinova.news/m/view.php?idx=19112